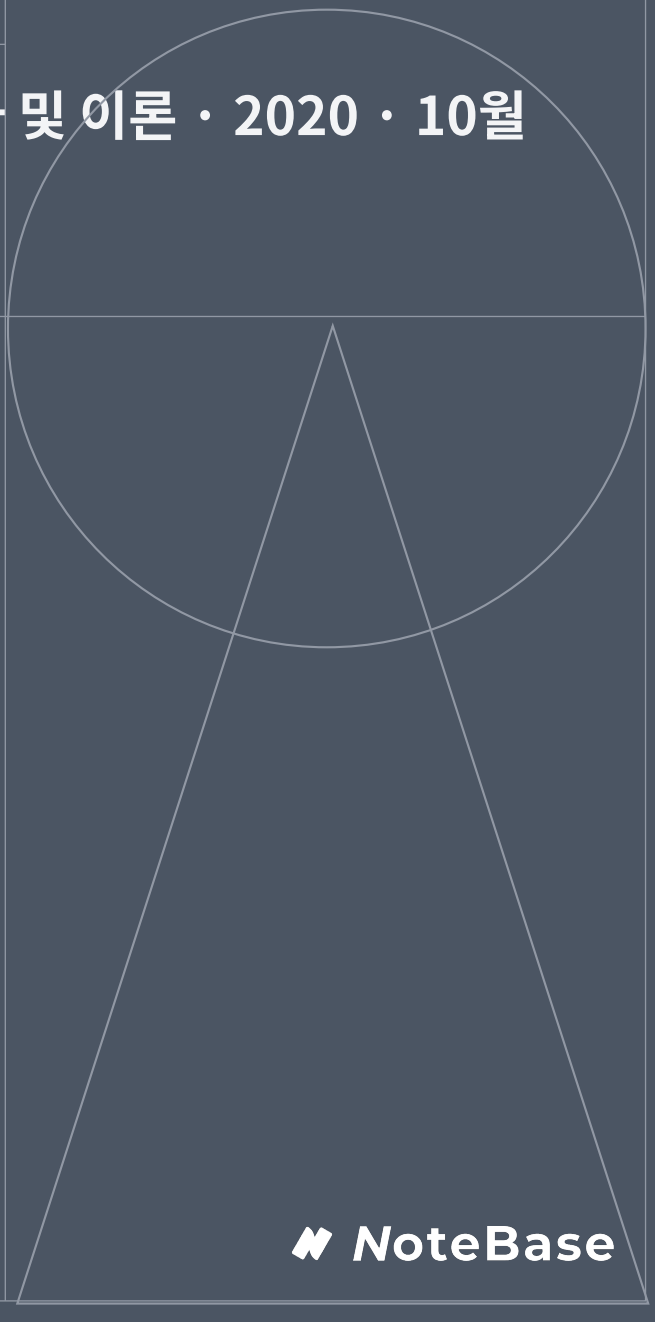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0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0 · 10월

문 1. “자연은 직선을 싫어 한다.”는 표현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풍경식 정원 전성기에 활동하였던 윌리엄 켄트(William Kent)이다.

② 치즈윅 가(Chiswick House)의 정원을 설계하였으며, 큐 가든(Kew Garden)의 정원사로도 활동하였다.

③ 직선 형태의 원로와 가로수 등을 대신하여 불규칙적인 연못과 곡선의 원로를 조성하였다.

④ 자연풍경화가인 로랭과 푸생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연풍경 묘사를 위해 고사한 수목을 심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윌리엄 켄트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특징, 관련 작업 이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윌리엄 켄트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선구적 인물이다.
직선 축선과 기하학적 화단보다 곡선 원로, 불규칙한 수면, 자연스러운 지형 연출을 중시하였다.
로랭과 푸생의 이상화된 자연풍경 구성을 정원 공간에 옮긴 인물로 평가된다.
치즈윅 하우스 정원 조성에는 관여하였지만 식물 재배를 담당하는 전문 정원사로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윌리엄 켄트는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을 본격화한 대표 인물이다. 형식정원에서 자연스러운 풍경식 정원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이끈 인물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큐 가든(Kew Garden)의 정원사로도 활동하였다'이다. 켄트는 치즈윅 하우스 정원 조성에 관여한 디자이너이자 경관 연출가이지만, 큐 가든의 전문 정원사로 보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치즈윅 하우스 정원 설계에 참여하였고, 큐 일대에서는 정원사라기보다 건축적 장식물과 경관을 설계한 인물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영국 풍경식 정원은 직선형 원로, 가로수 축선, 기하학적 화단 대신 곡선 산책로와 불규칙한 수면, 자연스러운 식재를 중시한다. 이 선지는 풍경식 정원의 형식 전환을 정확히 설명한다.
④ O - 켄트는 자연풍경화가인 클로드 로랭과 푸생의 회화적 구도에 영향을 받았다. 자연풍경의 극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사목까지 활용하였다는 일화도 켄트의 풍경화적 정원관을 보여 주므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은 앞부분의 '치즈윅 하우스 정원 설계'가 익숙한 사실이라서 뒷부분의 '큐 가든의 정원사'까지 함께 맞는 말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한 선지 안에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섞는 방식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인물명 하나만 보지 않고 대표 경력, 대표 양식, 직업적 위치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선지의 앞절이 맞더라도 뒤절에서 다른 인물의 경력이나 역할이 섞이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윌리엄 켄트 = 직선 축선 거부, 곡선 원로와 불규칙 연못, 풍경화식 정원 연출의 선구자이다.

NoteBase

문 2.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의 정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햄프턴 코트(Hampton Court) 정원

② 쉔브룬(Schonbrunn) 정원

③ 헤렌하우젠(Herrenhausen) 정원

④ 로스햄(Rousham) 정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앙드레 르 노트르가 대표하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영향권과 영국 풍경식 정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앙드레 르 노트르는 강한 중심축, 대칭, 파르테르, 원근을 길게 끄는 대전망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을 완성한 인물이다. 햄프턴 코트, 쇤브룬, 헤렌하우젠은 이런 바로크 정형식 구성이 뚜렷한 편이다. 로우샴은 윌리엄 켄트가 만든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작으로, 자연스러운 지형과 회화적 장면 구성이 중심이어서 르 노트르식 영향 정원으로 보기 가장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햄프턴 코트 정원은 영국에 있으나 후기에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축선과 대칭 구성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선지를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르 노트르식 정형 정원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본다.
② X: 쇤브룬 정원은 오스트리아 바로크 궁정정원의 대표 사례로, 대축선과 파르테르, 장대한 원근 구성이 프랑스 정형식 계열과 가깝다. 따라서 오답 선지이며, 올바르게는 르 노트르의 영향권에 있는 정원으로 이해한다.
③ X: 헤렌하우젠 정원은 독일의 대표적인 바로크 정원으로 대칭적 평면과 정제된 기하학 구성이 강하다. 따라서 '르 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정원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판단하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프랑스 정형식 조경의 영향을 받은 정원이다.
④ O: 로우샴 정원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작으로, 정형 축선과 기하학적 통제보다 자연 지형과 산책 동선, 회화적 장면 구성이 중심이다. 따라서 르 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유럽 정원으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 포인트

유럽의 궁정정원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같은 계열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유럽 국가들의 정원'이라는 넓은 범주에 끌려 영국 풍경식 정원인 로우샴까지 바로크 정형식 사례처럼 오인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르 노트르의 영향 여부는 중심축, 강한 대칭, 파르테르, 장대한 직선 원근이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지형, 불규칙한 경관, 회화적 산책 장면이 핵심이면 영국 풍경식 정원으로 보고 르 노트르식 영향과 거리를 둔다.

암기 포인트

르 노트르 = 축선·대칭·파르테르, 로우샴 =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NoteBase

문 3.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론(Garden 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와 농촌의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계획이다.

② 고밀도 토지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③ 인구밀도와 도시형태의 계획적 통제를 위해 그린벨트를 제안하였다.

④ 1903년 레치워스(Letchworth)와 1920년 웰윈(Welwyn)에 적용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제시한 핵심 목표인 도시와 농촌의 결합, 인구 규모 통제, 그린벨트, 실제 적용 사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함께 갖춘 자족적 계획도시 구상이다.
핵심은 무제한 대도시 팽창이 아니라 적정 인구 규모의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두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다.
대표적 실현 사례로 레치워스와 웰윈이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전원도시론은 도시의 문화·고용·교통 기능과 농촌의 자연·쾌적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하려는 구상이다. 선지의 "도시와 농촌의 두 장점"이라는 표현이 전원도시의 기본 취지와 일치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고밀도 토지계획"이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과밀한 대도시를 비판하며 적정 인구와 계획적 토지 이용을 중시하였지, 고밀도 개발 효율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론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적정 규모의 자족도시와 계획적 토지 이용을 통해 도시 과밀을 억제하였다"라고 정리된다.
3번 O: 전원도시론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인구 규모와 도시 형태를 통제하기 위해 도시 둘레의 농지·녹지를 보전하는 그린벨트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계획적 통제를 위한 그린벨트 제안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4번 O: 하워드의 전원도시 구상은 영국의 레치워스에 먼저 구현되었고, 이후 웰윈 가든시티에도 적용되었다. 선지의 연도와 사례 연결은 전원도시론의 대표적 실천 사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전원도시를 "계획도시"로만 기억하면 2번처럼 계획성과 효율성을 곧바로 고밀도 개발로 오해하기 쉽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토지이용 극대화가 아니라 대도시 과밀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워드 문항은 먼저 도시와 농촌의 결합, 적정 인구 규모, 그린벨트, 레치워스·웰윈이라는 대표 키워드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과밀·고밀도 개발 같은 대도시 집중형 표현이 붙으면 전원도시론과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하워드 전원도시 = 도시와 농촌의 결합 + 적정 규모 자족도시 + 그린벨트 + 레치워스·웰윈이다.

NoteBase

문 4. 15~16세기 이탈리아에 조영된 정원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기 산을 배경으로 계곡이나 구릉지에 조영되는 입지적 특성은 16세기에 와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역에 확산되었다.

② 빌라 에스테(Villa d'Este)는 주변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물극장, 물풍금, 분수, 연못 등을 조성해 정원 어디에서나 물소리를 듣게 하였다.

③ 15세기 초에는 로마 교황, 16세기 중엽부터는 메디치 가문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④ 15세기 플로렌스 지방의 빌라에서는 단순하고 조용한 연못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5세기 플로렌스형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과 16세기 로마형 정원의 전개를 비교하면서, 입지 특성·수경 장치·후원 세력의 시기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5세기 플로렌스형 빌라는 언덕과 경사지를 활용한 비교적 단순한 별장 정원으로, 조용한 연못과 조각 장식이 중심이다.
16세기 로마형 정원은 교황과 추기경 등 로마 권력층의 후원 아래 규모가 커지고, 테라스·분수·수극장처럼 극적인 수경 장치가 발달한다.
판단 축은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이 중심이었는가와 수공간이 정적이었는가, 극적이었는가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15세기 이탈리아 정원은 플로렌스 주변의 산지·구릉지 빌라에서 발달했고, 이런 경사지 입지와 테라스형 구성은 16세기에 로마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② O
빌라 에스테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원을 대표하는 수경 정원으로,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
분수·연못·물극장·물풍금 같은 장치를 배치하였다. 물의 흐름과 소리를 공간 경험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설명이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15세기 초에는 로마 교황, 16세기 중엽부터는 메디치 가문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이다.
실제로는 15세기 초의 초기 전개는 플로렌스의 메디치 가문 등 유력 가문이 이끌었고, 16세기 중엽에는 로마 교황과 추기경이 더 화려한 정원 조성을 주도하였다.
후원 세력의 시기가 서로 뒤바뀐 선지이다.

④ O
15세기 플로렌스 지방의 초기 빌라는 후대 로마 정원처럼 과장된 수경 연출보다 단순한 연못과 조각 장식이 중심이었다. 초기 르네상스 정원의 절제된 분위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메디치 가문과 로마 교황이 모두 르네상스 정원의 핵심 후원자였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③처럼 시기 순서를 뒤집어도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문항은 '15세기 플로렌스'와 '16세기 로마'의 대응 관계를 섞어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은 먼저 15세기 플로렌스 언덕 빌라의 절제된 정원, 다음 16세기 로마의 화려한 수경 정원 순으로 정리하면 입지·후원 주체·공간 성격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플로렌스-메디치-절제된 빌라, 로마-교황-극적 수경으로 기억하면 정리된다.

NoteBase

문 5. 정원의 명칭과 참여한 설계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토우 가든(Stowe Garden) - 반브러프(Vanbrugh)

② 스투어헤드(Stourhead) - 브리지맨(Bridgeman)

③ 프티 트리아농(Petit Trianon) - 가브리엘(Gabriel)

④ 말메종(Malmaison) -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양 정원의 대표 작품명과 참여 설계가를 연결하는 문제로, 설계가와 화가·영감의 원천을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정리

반브러프: 영국 바로크 건축가로 스토우 가든의 초기 공간 구성과 정원 건축물 조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브리지맨: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초기 전개를 이끈 설계가로 스투어헤드와 연결해 정리하는 대표 인물이다.
가브리엘: 프랑스 신고전주의 건축가로 프티 트리아농의 설계자로 연결된다.
클로드 로랭: 정원 설계가가 아니라 이상적 목가 풍경을 그린 화가로, 풍경식 정원에 시각적 영감을 준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스토우 가든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이며 반브러프가 초기에 참여한 정원으로 정리된다. 스토우는 대규모 경관 구성과 정원 건축물로 기억하는 조합이다.
② O: 스투어헤드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정원으로, 수험 정리에서는 브리지맨과 연결해 기억하는 대표 조합이다. 자연스러운 호수 경관과 회화적 장면 구성이 핵심 특징이다.
③ O: 프티 트리아농은 베르사유 정원 안의 소규모 별궁으로 가브리엘의 신고전주의 설계와 연결된다. 프랑스 후기 형식정원 문맥에서 자주 묶이는 정확한 매칭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말메종-클로드 로랭'의 연결이다. 클로드 로랭은 정원 설계가가 아니라 풍경화가이다. 올바르게는 말메종은 조제핀 시대의 정원으로 베르토(Berthault) 등의 설계가와 연결해 기억한다.

오답 포인트

클로드 로랭은 정원을 만든 인물이 아니라 정원이 닮고자 한 풍경 이미지를 제공한 화가라는 점에서 함정이 된다. 특히 풍경식 정원 문제에서는 실제 설계가와 회화적 영감의 원천을 섞어 놓는 방식으로 오답을 유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명-인물 매칭 문제는 먼저 인물의 직능이 설계가·건축가인지, 화가인지부터 가른 뒤 대표 작품을 1대1로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화가 이름이 나오면 설계 참여자가 아니라 영향 관계인지부터 의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로랭은 화가이고, 프티 트리아농은 가브리엘이며, 말메종은 로랭이 아니라 실제 정원 설계가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6. 벌 막스(Roberto Burle Marx)의 조경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미의 향토식물을 발굴하여 조경수로 활용하였다.

② 풍부한 색채, 지피류와 포장 그리고 물의 구성을 통한 패턴을 창작하였다.

③ 열대경관을 새롭게 인식시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였다.

④ 그의 작품인 페드레갈 정원(Pedregal Garden)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작으로 평가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베르투 벌 막스의 대표 조경 어휘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대표작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로베르투 벌 막스는 브라질 자생 열대식물을 현대 조경의 주재료로 끌어들인 조경가이다.
그는 강한 색채 대비, 넓은 식재 군락, 곡선형 포장, 수공간을 회화처럼 구성하여 현대 열대정원의 언어를 만들었다.
반면 페드레갈은 멕시코의 루이스 바라간과 연결되는 작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선지별 해설

① O. 벌 막스는 브라질과 남미의 자생식물을 수집·재배하며 조경 식재에 적극 사용한 인물이다. '남미의 향토식물을 발굴하여 조경수로 활용'했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벌 막스의 정원은 풍부한 색채, 지피류의 큰 군식, 곡선형 포장, 물의 면과 흐름을 함께 써서 추상적 패턴을 만드는 점이 특징이다. 선지의 설명은 그의 조형 언어와 맞는다.
③ O. 벌 막스는 열대식물을 주변적 재료가 아닌 현대 조경의 중심 재료로 끌어올려 열대경관의 가치를 새롭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현대 열대정원의 성립과 세계적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④ X. 틀린 부분은 '그의 작품인 페드레갈 정원'이라는 연결이다. 페드레갈은 벌 막스의 대표작이 아니라 멕시코의 루이스 바라간과 연결되는 작업이다. 올바르게는 '페드레갈은 루이스 바라간의 작업 맥락에서 이해되는 정원·주거 개발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벌 막스와 루이스 바라간은 모두 라틴아메리카 현대 조경·건축의 거장이라 작품명이 섞이기 쉽다. 이 문항은 벌 막스의 식재·포장·열대정원 어휘는 맞게 제시하고, 마지막 선지에서 다른 작가의 대표 작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먼저 '자생식물 활용', '회화적 포장 패턴', '현대 열대정원'처럼 대표 키워드를 잡고, 작품명이 나오면 그 작품의 작가를 따로 대조하면 된다. 인물의 조형 언어와 작품 귀속이 동시에 맞아야 옳은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벌 막스 = 브라질 자생 열대식물 + 회화적 포장 패턴, 페드레갈 = 루이스 바라간이다.

NoteBase

문 7. 영국 풍경식 정원의 특징 중 하나로, <보기>의 단면도가 나타내는 기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① 몬티첼로(Monticello) 정원에 찰스 브리지맨(Charles Bridgeman)이 처음 적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② 프랑스의 군사용 호(trench)에서 유래하였다.

③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아 동양정원에서의 차경기법과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④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면도에서 지면 아래에 벽을 숨겨 시야는 열고 경계 기능은 유지하는 하하(ha-ha) 기법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몬티첼로 정원에 찰스 브리지맨이 처음 적용'이다.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의 미국 저택 정원으로, 이 기법을 브리지맨이 그곳에 처음 적용한 사례로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영국 풍경식 정원에서 발전한 하하가 이후 몬티첼로에도 도입되었다고 정리하는 편이 맞다.

② O

- 하하는 영국 풍경식 정원에서 발전한 장치이지만, 그 원형 설명은 프랑스의 군사용 호와 같은 도랑형 경계와 연결된다. 지면을 파서 경계를 만들고 시야는 열어 둔다는 구조 설명이 맞다.

③ O

- 하하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막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만든다. 그래서 정원 내부에서 외부 초지나 농경지가 한 화면처럼 이어져 보이는 효과가 나며, 이는 차경과 유사한 시각적 확장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O

- 하하는 겉으로는 울타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단차와 벽으로 가축의 출입을 막는다.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장 가축으로부터 정원 영역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하하는 기능보다 기원 인물·적용 장소를 섞어 놓을 때 많이 흔들린다. 이 문항의 ①은 '브리지맨'과 '몬티첼로'를 한 문장에 묶어 사실관계를 뒤섞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면도에서 지면 아래로 벽이나 도랑을 숨기고 시야는 그대로 열어 두면 하하를 먼저 떠올린다. 그다음 '열린 조망 유지'와 '가축 차단'이 함께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하하는 숨은 울타리이다. 보기는 열고, 가축은 막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경계 장치이다.

NoteBase

문 8. 중국 청(淸) 시대의 북경 사합원 주택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방과 좌우 상방이 서로 주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② 마당은 주변 정원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장을 하지 않았다.

③ 화목을 심거나 분재로 장식하였다.

④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좌우로 별원이나 뒤편에 화원을 조성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대 북경 사합원의 기본 공간구성과 마당 처리 방식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합원은 정방을 중심으로 좌우 상방과 도좌방이 안마당을 둘러싸는 북경의 전통 합원주택이다. 마당은 생활과 동선의 중심 공간이어서 대체로 벽돌 등으로 포장하고, 화목이나 분재는 점경 요소로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방과 좌우 상방은 처마 아래 주랑으로 이어져 이동과 차양 기능을 함께 갖는 구성이 일반적이다. 안마당을 둘러싼 연속 동선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마당은 주변 정원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사합원의 마당은 생활마당 성격이 강하므로 흙마당으로 비워 두기보다 벽돌 등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다. 올바르게는 "마당은 생활과 동선을 위해 비교적 단정하게 포장하고, 화분·수목 등으로 부분 장식하였다"가 된다.

③ O
사합원은 화목을 심거나 분재를 두어 폐쇄적인 안마당에 경관성을 더하였다. 큰 정원을 본격적으로 꾸미지 않더라도 분재와 화분 장식은 흔한 연출 방식이다.

④ O
규모가 큰 사합원은 기본 중정 외에 좌우 별원이나 후원 성격의 화원을 덧붙여 공간을 확장하였다. 즉 기본형보다 확장된 상류주택에서는 부속 정원이 조성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원주택이라는 말만 보고 ②처럼 마당을 자연식 비포장 공간으로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사합원의 중심 마당은 감상용 정원보다 생활마당의 성격이 강하므로 포장 여부가 핵심 구별점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합원 관련 선지는 먼저 "중정을 둘러싼 폐쇄형 주거구성인지"와 "마당이 생활공간인지 감상용 자연정원인지"를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생활마당이면 포장, 주랑, 분재 장식 같은 요소가 연결되어 떠오른다.

암기 포인트

사합원은 합원주택, 중정은 생활마당, 마당은 포장하고 분재로 꾸민다.

NoteBase

문 9. 중국의 황가원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원명원은 풍경구와 경관을 분리할 때 낮은 담과 곡랑을 사용하고 돌길과 누창을 이용하여 각각의 경관을 연결했다.

② 이화원은 원대의 태액지(太液池)를 기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수면이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③ 불향각은 원명원 설계의 핵심이자 상징이며, 신선이 사는 누각을 묘사하여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④ 강희제는 피서산장 속에 대표적인 36개 경관구역을 만들고, 건륭제는 거기에 새롭게 36곳을 더하여 풍부한 경관을 조성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황가원림별 대표 시설과 공간 구성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명원은 여러 정원을 아우르는 대규모 황가원림으로, 강남 사가원림의 섬세한 차경 수법을 일부 수용했더라도 전체 성격은 장대한 수경과 건축군의 전개에 있다.
이화원은 만수산과 곤명호를 중심으로 한 황가원림이며, 곤명호 수면이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피서산장은 청대 황제의 피서용 황가원림으로 강희 36경과 건륭 36경이 합쳐진 72경이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원명원은 낮은 담과 곡랑, 돌길과 누창으로 경관을 분리·연결했다'는 적용 대상이다. 이런 서술은 소주 등 강남 사가원림의 세밀한 공간 처리 설명에 더 가깝고, 원명원의 대표적 성격을 바로 짚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원명원은 넓은 수면, 섬, 건축군을 결합한 장대한 황가원림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면이 전체 면적의 35%'이다. 이화원은 곤명호가 중심이 되는 원림으로 수면이 전체 면적의 약 75%를 차지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불향각은 원명원 설계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불향각은 원명원이 아니라 이화원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④ O: 피서산장은 강희제가 36경을 정하고, 건륭제가 다시 36경을 더해 모두 72경의 대표 경관 체계를 이룬다. 황가원림의 대표 경관 조성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원명원, 이화원, 피서산장의 대표 상징물을 서로 바꾸어 놓거나 수면 비율 같은 수치를 축소해 놓으면 쉽게 흔들린다. 특히 불향각은 이화원, 36경·72경은 피서산장이라는 연결이 자주 뒤섞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황가원림 문제는 먼저 원림 이름과 대표 표지를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불향각이 보이면 이화원, 강희 36경과 건륭 36경이 나오면 피서산장, 넓은 수면 비율이 나오면 이화원의 곤명호 약 75%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화원은 불향각과 곤명호 75%, 피서산장은 강희 36경과 건륭 36경이다.

NoteBase

문 10. 중국 명(明) 시대에 조성된 소주지역의 정원이 아닌 것은?

① 유원(留園)

② 졸정원(拙政園)

③ 사자림(獅子林)

④ 예포(藝圃)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주의 대표 정원 가운데 명대에 조성된 정원과 원대에 조성된 정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유원(留園)은 소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전신인 동원이 명대에 조성된 뒤 청대에 크게 정비된 정원이다.
졸정원(拙政園)은 명 정덕 연간에 조성된 소주의 대표적 사가정원이다.
사자림(獅子林)은 소주의 유명 정원이지만 조성 시기는 원대 말이므로 명대 정원이 아니다.
예포(藝圃)는 명대에 조성된 소규모 문인정원으로 소주 정원의 전형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원은 소주의 대표 정원이며 그 전신은 명대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명 시대에 조성된 소주지역의 정원에 해당한다.
② O: 졸정원은 명대 왕헌신이 조성한 정원으로, 명대 소주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명 시대에 조성된"이다. 사자림은 소주 정원이라는 점은 맞지만 조성 시기는 원대 말이다. 올바르게는 "사자림은 원대 말에 조성된 소주 정원이다"가 된다.
④ O: 예포는 명대에 조성된 소주 정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명대 문인정원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사자림도 소주의 유명 정원이라는 점 때문에 명대 정원으로 함께 묶기 쉽다. 이 문항은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성 시기까지 함께 묻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주 정원 문제는 정원 이름만 외우지 말고 "소주 여부"와 "조성 시기"를 함께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네 정원 중 사자림은 원대, 졸정원·유원·예포는 명대로 정리하면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주 명대 정원은 졸정원·유원·예포이고, 사자림만 원대 정원이다.

NoteBase

문 11. 중국 명(明) 시대에 계성(計成)이 쓴 정원서인 『원야(園冶)』에서 설명하는 차경(借景) 기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원차(遠借) - 풍성한 경치를 빌려 쓰는 것

② 인차(隣借) - 높은 산악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

③ 앙차(仰借) - 가까운 곳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

④ 부차(俯借) - 눈 아래 전개되는 낮은 곳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야』에서 설명한 차경의 유형을 한자 뜻과 시선 방향, 거리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경은 정원 밖의 경관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여 경관 효과를 넓히는 수법이다.
원차는 멀리 있는 경치를 빌리는 것이다. 키워드는 원경이다.
인차는 이웃하거나 인접한 경치를 빌리는 것이다. 키워드는 인접이다.
앙차는 올려다보이는 높은 곳의 경치를 빌리는 것이다. 키워드는 위쪽 시선이다.
부차는 내려다보이는 낮은 곳의 경치를 빌리는 것이다. 키워드는 아래쪽 시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원차를 "풍성한 경치"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원차는 경치의 풍부함이 아니라 거리 기준으로 먼 곳의 산, 탑, 원경을 빌리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먼 곳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이다.

② X
인차를 "높은 산악의 경치"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인차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웃하고 인접한 경치를 빌리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이웃하거나 가까이 맞닿은 곳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이다.

③ X
앙차를 "가까운 곳의 경치"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앙차는 거리보다 시선의 방향이 핵심이어서 위를 올려다보며 높은 산봉우리나 누각 등의 경치를 빌리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올려다보이는 높은 곳의 경치를 빌려 쓰는 것"이다.

④ O
부차는 아래를 굽어보며 눈 아래 펼쳐지는 낮은 곳의 경치를 빌리는 방식이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원차·인차는 거리와 인접성으로, 앙차·부차는 시선 방향으로 구분해야 한다. ②는 높은 곳이라는 앙차의 성격을 인차에 섞었고, ③은 가까운 곳이라는 인차의 느낌을 앙차에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경 유형이 나오면 먼저 구분 축을 본다. 원차와 인차는 멀다·이웃한다는 거리와 위치로 판단하고, 앙차와 부차는 올려다본다·내려다본다는 시선 방향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원은 멀고, 인은 이웃이며, 앙은 위를 보고, 부는 아래를 본다.

NoteBase

문 12. 일본 고산수정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석을 쌓아 폭포나 산을 형상화한 축산고산수와 평지에 모래와 경관석으로 산수자연을 표현한 평정고산수로 분류된다.

② 검창(鎌倉)시대에 선종의 융성과 함께 확립되었다.

③ 선사상을 보여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원양식으로 자연경관을 상징적 혹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용안사, 대덕사 대선원, 진주암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고산수정원의 유형, 성립 시기, 표현 성격, 대표 정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산수정원은 물을 직접 쓰지 않고 돌, 모래, 백사로 산수 경관을 상징적·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일본 정원양식이다.
축산고산수는 자연석을 쌓아 산이나 폭포 같은 입체 지형을 만드는 형식이고, 평정고산수는 평지에 모래와 경관석으로 산수의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이다.
고산수정원은 선종의 영향과 함께 발달하였지만, 대표적 양식으로 확립된 시기는 무로마치시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고산수는 구성 방식에 따라 돌을 쌓아 산과 폭포를 형상화하는 축산고산수와, 평지에 모래와 돌로 자연을 추상화하는 평정고산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번: X. 틀린 부분은 '겸창(鎌倉)시대에 ... 확립되었다'는 표현이다. 고산수는 선종 문화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지만 대표적 정원양식으로 확립된 것은 무로마치시대이다. 올바르게는 '선종의 영향 아래 발달하여 무로마치시대에 대표적 양식으로 확립되었다'이다.
3번: O. 고산수정원은 선사상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을 실제 재현하기보다 상징적·추상적으로 압축해 표현하는 일본의 대표적 정원양식이다.
4번: O. 용안사, 대덕사 대선원, 진주암은 일본 고산수정원의 대표 사례로 자주 제시된다.

오답 포인트

선종과의 관련성을 보면 곧바로 가마쿠라시대를 떠올리기 쉽지만, 선종의 유입 시기와 고산수 양식의 확립 시기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 문항은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기'와 '양식이 확립된 시기'를 어긋나게 배치한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사 문항에서 고산수가 나오면 먼저 물 없는 추상적 산수 표현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축산고산수·평정고산수의 구분과 무로마치시대 성립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산수는 물 대신 돌과 모래, 선종 배경, 무로마치 확립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조선시대 별서와 마을의 주요 격리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죽림에 의한 시각적 격리

② 대하천에 의한 관념적 격리

③ 접근로의 우회, 장애물에 의한 복합적 격리

④ 성벽에 의한 방어적 격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별서가 마을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 군사적 방어가 아니라 자연지형, 수림, 수계, 동선 조절에 있었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서는 자연 속에서 은거와 풍류를 즐기기 위해 조성한 별업 공간이다. 마을과의 격리는 적의 침입을 막는 성곽형 차단이 아니라 경관을 가리고 심리적 거리를 만들며 접근을 완만하게 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시각적 격리는 죽림이나 수림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관념적 격리는 큰 하천이나 지형 경계를 사이에 두어 생활권은 가깝더라도 인식상 다른 영역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복합적 격리는 접근로를 굽히거나 장애물을 두어 시선과 동선을 함께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죽림은 마을과 별서 사이의 시야를 차단하여 내부 경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표적 시각적 격리 수단이다.

② O
대하천은 물리적 경계이면서도 일상 생활권을 나누는 상징적 경계가 되어 관념적 격리를 만든다.

③ O
접근로를 우회시키고 중간에 지형·수목·장애 요소를 두는 방식은 시선 차단과 접근 지연이 함께 작동하므로 복합적 격리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성벽에 의한 방어적 격리이다.
조선시대 별서의 주요 격리는 군사시설처럼 성벽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지형, 수림, 수계, 우회 동선에 의한 비방어적 격리이다. 담장이나 울타리가 일부 보조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주요 원리는 성벽형 방어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별서도 외부와 경계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④를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경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경계의 성격을 묻는다. 별서는 방어 거점이 아니라 경관 감상과 은거의 공간이므로 성벽형 방어 격리로 이해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와 마을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군사적 방어 공간인지, 자연 속 은거 공간인지를 가른다. 별서라면 성곽보다 수림, 하천, 지형, 우회 동선 같은 자연적·비방어적 격리 장치를 우선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별서의 격리는 성벽이 아니라 수림, 수계, 지형, 동선 조절이다.

NoteBase

문 14. 고려시대 개성 만월대(滿月臺)의 궁원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건덕전(乾德殿) - 본궁 동북쪽에 세워진 전각으로 주위에 기이한 돌을 배치하고 꽃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으며, 비빈(妃嬪)과 시녀들의 침실로 사용했던 곳

② 임해전(臨海殿) - 궁궐 동쪽의 큰 연못으로, 진금기수(珍禽奇獸)를 사육하고 물가의 누각에서 정원을 감상했던 곳

③ 사루(紗樓) - 모란이 필 때 상화연을 베풀고 꽃을 감상하면서 시를 짓기도 했던 곳

④ 화원(花園) - 약용식물과 식용식물을 가꾸던 실용적인 정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성 만월대의 궁원 요소별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덕전은 회경전에 버금가는 궁전급 전각으로 왕이 일상 정사를 보던 공간으로 이해된다.
동지는 궁궐 동쪽에 조성된 큰 연못과 그 주변 원지 공간으로, 진금기수 사육과 수변 감상이 이루어진다.
사루는 모란으로 이름난 누각 공간으로, 꽃이 필 때 상화연과 시회가 이루어진다.
화원은 꽃을 중심으로 꾸민 감상 정원이며, 채포·과포·약포 같은 실용 재배 공간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비빈과 시녀들의 침실"이다. 건덕전은 왕이 정사를 보던 전각으로 이해되며, 침실과 비빈·시녀의 거처는 건덕전 뒤의 만령전 일대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임해전-궁궐 동쪽의 큰 연못"이다. 궁궐 동쪽의 큰 연못에서 진금기수를 사육하고 누각을 곁들인 공간은 동지이며, 임해전을 연못 자체로 보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③ O. 사루는 모란으로 유명한 공간으로 전해지며, 모란이 필 때 상화연을 베풀고 꽃을 감상하며 시를 짓던 곳이라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약용식물과 식용식물을 가꾸던 실용적인 정원"이다. 화원은 팔선전에 꾸며진 꽃 중심의 감상 정원에 가깝고, 약용·식용 식물 재배는 채포·과포·약포 같은 실용 재배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궁전 이름과 원지 이름을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②처럼 연못 동지의 기능을 임해전에 붙이거나, ①처럼 만령전의 침실 기능을 건덕전에 붙이는 식의 교차 출제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월대 요소 문제는 먼저 전각인지, 연못·누각인지, 꽃 감상 공간인지, 실용 재배 공간인지를 구분한 뒤 기능을 대응시키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루는 모란과 상화연, 동지는 큰 연못과 진금기수, 건덕전은 정사 공간, 화원은 꽃 감상 정원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5.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주요 경관요소로, 퇴계 선생이 지당(池塘)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은?

① 몽천(夢泉)

② 정우당(淨友塘)

③ 절우사(節友社)

④ 천연대(天淵臺)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도산서원의 주요 경관요소 이름과 실제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우당은 퇴계가 도산서당에 조성한 작은 연못으로 연꽃을 심은 곳이다.
몽천은 도산서당 터를 잡게 한 샘물이다.
절우사는 매화·대나무·국화·소나무를 심어 가꾸던 화단이다.
천연대는 퇴계가 자연을 벗 삼아 수양하던 동쪽 절벽의 이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몽천은 지당에 연꽃을 심은 유적이 아니라 도산서당 곁에서 솟는 샘물이다. 틀린 표현은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도산서당의 입지를 상징하는 샘'이다.
② O: 정우당은 도산서당의 작은 연못으로, 퇴계가 연꽃을 심고 '깨끗한 벗'이라는 뜻을 붙인 경관요소이다. 발문의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절우사는 연못이 아니라 퇴계가 매화·대나무·국화·소나무를 심어 가꾸던 화단이다. 틀린 표현은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을 심은 작은 화단'이다.
④ X: 천연대는 연꽃 연못이 아니라 퇴계가 산책하며 수양하던 동쪽 절벽의 이름이다. 틀린 표현은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던 경승지의 대'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이름에 물과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한자가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샘은 몽천, 화단은 절우사, 절벽은 천연대, 연꽃 연못은 정우당으로 나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산서원 경관요소 문제는 이름의 한자 뜻보다 조성 방식과 쓰임을 먼저 묶어 판단한다. 물이 고인 연못에 연꽃을 심은 곳이면 정우당, 솟는 샘이면 몽천, 식재 공간이면 절우사, 절벽 위 경승 공간이면 천연대로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우당=연꽃 연못, 몽천=샘, 절우사=사우 식재 화단, 천연대=수양하던 절벽이다.

NoteBase

문 16. 창덕궁(昌德宮) 후원의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애련지(愛蓮池)는 사각형의 연못과 가운데 둥근 섬으로 구성되어 전통 우주관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한다.

② 왕은 청의정(淸漪亭) 앞의 논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어 백성들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③ 소요정(逍遙亭)에 현판으로 걸려있는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는 명문을 통해 정조의 군주(君主)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낙선재(樂善齋) 경내에는 늙지 않는다는 의미의 아치형 통돌인 불로문(不老門)이 위치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창덕궁 후원 각 권역의 전각·연못·문 이름과 기능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의정은 논과 결합된 초가정자로 왕의 농경 의례와 연결되는 공간이다. 부용지는 사각 연못과 둥근 섬의 구성으로 천원지방의 상징과 연결된다. 존덕정은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 현판으로 유명하고, 불로문은 애련지 권역의 장수 기원 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애련지는 사각형의 연못과 가운데 둥근 섬으로 구성되어 천원지방을 상징한다'이다. 사각 연못과 원도 구성으로 천원지방을 드러내는 대표 공간은 애련지가 아니라 부용지이다.
② O. 청의정은 논 한가운데 세운 초가정자이며, 왕이 친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농경 의례와 연결되어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의 중요성을 보이는 공간이다. 따라서 청의정 앞의 논과 왕의 농사 상징을 연결한 설명은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소요정에 현판으로 걸려있는 만천명월주인옹'이다. '만천명월주인옹' 현판을 통해 정조의 군주관을 확인하는 전각은 소요정이 아니라 존덕정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낙선재 경내에는 불로문이 위치한다'이다. 불로문은 낙선재가 아니라 애련지 권역에 있는 아치형 돌문이다.

오답 포인트

후원의 여러 공간을 따로 외우지 않고 이미지나 한자어 분위기로만 기억하면 부용지·애련지, 존덕정·소요정, 낙선재·애련지 권역이 서로 뒤섞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원 문제는 먼저 고유 키워드를 묶어 판단한다. '논+초가정자'는 청의정, '사각 연못+둥근 섬+천원지방'은 부용지, '만천명월주인옹'은 존덕정, '불로문'은 애련지 권역으로 대응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의정은 논, 부용지는 천원지방, 존덕정은 만천명월주인옹, 불로문은 애련지 권역이다.

NoteBase

문 17. 고려시대 이자현이 속세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던 곳으로 강원도 춘천의 청평사(淸平寺) 계곡에 위치한 서원은?

① 문수원(文殊院)
② 무기연당(舞沂蓮塘)
③ 일지암(一枝庵)
④ 아석헌(我石軒)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시대 이자현의 은거지로 알려진 춘천 청평사 계곡의 선원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문수원은 이자현이 속세를 떠나 머물렀다고 전하는 춘천 청평사 계곡의 고려 선원이다.
무기연당은 청평사 계곡의 고려 선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원림의 연당 공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일지암은 전남 해남 대흥사 산내의 암자로, 초의선사와 관련되는 장소이다.
아석헌은 창녕 성씨고가와 관련된 고택의 당호로, 고려 선원 명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수원은 이자현이 속세를 떠나 은거하였다고 전하는 춘천 청평사 계곡의 선원이다. 문제의 지명과 인물을 모두 정확히 연결한 선지이다.

② X
무기연당은 청평사 계곡의 고려 선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자현이 은둔생활을 하던 곳"이라는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조선시대 원림의 연당 공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③ X
일지암은 춘천 청평사 계곡이 아니라 전남 해남 대흥사 산내에 있는 암자이다. 틀린 표현은 "청평사 계곡에 위치한 선원"이라는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초의선사와 관련된 해남의 암자이다.

④ X
아석헌은 고려시대 이자현의 은거지 선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청평사 계곡의 선원"이라는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창녕 성씨고가와 관련된 고택의 당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한자식 명칭이어서 불교 공간이나 옛 정원 이름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자현-춘천 청평사 계곡"이라는 고유 연결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시대 이자현의 은거지, 춘천, 청평사 계곡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먼저 문수원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조선시대 원림의 연당이나 다른 지역의 암자, 고택 당호가 보이면 바로 제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자현의 청평사 은거지 = 문수원이다.

NoteBase

문 18. 한·중·일의 누(樓)·정(亭)·대(臺)의 경관적 특징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한국: 외부지향적, 중국: 양면지향적, 일본: 내부지향적

② 한국: 내부지향적, 중국: 외부지향적, 일본: 외부지향적

③ 한국: 양면지향적, 중국: 내부지향적, 일본: 외부지향적

④ 한국: 외부지향적, 중국: 외부지향적, 일본: 양면지향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중·일 누·정·대의 공간 지향성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은 자연 경관을 바깥으로 조망하도록 열린 누정이 발달해 외부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경관을 함께 조직해 안팎을 동시에 향하는 양면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일본은 정원 내부의 구성과 세부 경관을 끌어들여 감상하는 성향이 강해 내부지향적 성격으로 정리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의 외부지향적, 중국의 양면지향적, 일본의 내부지향적 대응이 모두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국을 '내부지향적', 중국을 '외부지향적', 일본을 '외부지향적'으로 본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은 외부지향적, 중국은 양면지향적, 일본은 내부지향적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한국을 '양면지향적', 중국을 '내부지향적', 일본을 '외부지향적'으로 바꾼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은 자연 조망 중심의 외부지향적이고, 중국은 안팎을 함께 향하는 양면지향적이며, 일본은 정원 내부 감상 중심의 내부지향적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중국을 '외부지향적', 일본을 '양면지향적'으로 본 표현이다.
한국의 외부지향적은 맞지만, 중국은 양면지향적이고 일본은 내부지향적이므로 전체 짝짓기는 틀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외부지향적과 양면지향적을 비슷하게 보아 한국과 중국을 뒤바꾸기 쉽다. 일본도 개방된 정원 이미지 때문에 외부지향적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핵심은 건물 바깥 원경보다 정원 내부 구성의 감상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국은 자연 원경을 향해 열리는 유형, 중국은 내부와 외부를 함께 향하는 유형, 일본은 정원 내부를 끌어들여 감상하는 유형이라는 세 축으로 먼저 대입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한-밖, 중-양면, 일-안으로 기억하면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구성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진입공간 - 제향공간 - 전이공간 - 능침공간

② 진입공간 - 능침공간 - 전이공간 - 제향공간

③ 진입공간 - 전이공간 - 제향공간 - 능침공간

④ 진입공간 - 능침공간 - 제향공간 - 전이공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구성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배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진입공간 - 능역으로 들어서는 초입 공간이다.
2. 제향공간 - 홍살문과 정자각을 중심으로 제례를 행하는 공간이다.
3. 전이공간 - 제향공간에서 봉분이 있는 상부 영역으로 넘어가는 연결 공간이다.
4. 능침공간 - 봉분과 병풍석, 난간석 등으로 이루어진 가장 성역화된 공간이다.

왜 이 순서: 왕릉은 먼저 능역에 진입한 뒤 제례를 올리고, 그 다음 봉분 직전의 완충 구간을 지나 마지막에 능침에 이르는 위계로 구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진입공간-제향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의 배열이 맞다. 바깥의 진입공간을 지나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에 이르고, 다시 봉분으로 올라가기 전의 전이공간을 거쳐 가장 안쪽의 능침공간으로 들어간다.

② X: 틀린 부분은 능침공간을 제향공간 바로 뒤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제향공간 뒤에는 전이공간이 오고 능침공간은 마지막에 놓인다.

③ X: 틀린 부분은 제향공간과 전이공간의 선후관계이다. 올바르게는 제례를 행하는 제향공간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능침으로 이어지는 전이공간이 온다.

④ X: 틀린 부분은 능침공간을 두 번째에 둔 점과 제향공간·전이공간의 순서를 뒤집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진입공간-제향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이다.

오답 포인트

능침공간을 제향공간과 같은 평면상의 다음 단계로 오해하면 ②와 ④에 끌리기 쉽다. 또한 제향공간과 전이공간을 둘 다 중간 영역으로만 기억하면 ③처럼 순서를 바꾸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왕릉 공간 문제는 바깥의 출입 영역, 제례를 수행하는 영역, 봉분으로 올라가는 연결 영역, 실제 봉분이 놓인 성역의 순서로 위계를 따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왕릉은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올라가서 묻힌 곳에 이른다는 흐름으로 진입-제향-전이-능침 순서이다.

NoteBase

문 20. 유박의 『화암수록』에 수록된 화목 구등품제(九等品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등은 부와 귀를 취하고 매·국·연·대·솔이 해당된다.

② 2등은 뛰어난 운치를 취하고 모란·작약·왜홍·해류·파초가 해당된다.

③ 5등은 변화함을 취하고 석류·도화·해당·장미·수양이 해당된다.

④ 8등은 장점을 취하고 목근·석죽·옥잠화·구화·전추라가 해당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박의 『화암수록』에 실린 화목 구등품제에서 등급별 기준어와 해당 화목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1등은 높고 뛰어난 운치를 취하고 매·국·연·대·솔이 해당된다.
2등은 부귀를 취하고 모란·작약·왜홍·해류·파초가 해당된다.
5등은 번화를 취하고 석류·도화·해당·장미·수양이 해당된다.
8등은 각 식물의 장점을 취하고 목근·석죽·옥잠화·봉선화·두충이 해당된다.
9등은 각 식물의 장점을 취하고 규화·전추라·금전화·창잠·화양목이 해당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1등의 기준을 '부와 귀'로 본 부분이 틀리다. 1등은 높고 뛰어난 운치를 취하며 매·국·연·대·솔이 해당된다. 부귀는 2등의 기준이다.

② X
2등의 기준을 '뛰어난 운치'로 본 부분이 틀리다. 2등은 부귀를 취하고 모란·작약·왜홍·해류·파초가 해당된다. 뛰어난 운치는 1등의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③ O
5등은 번화를 취하고 석류·도화·해당·장미·수양이 해당된다는 설명이 맞다. 기준어와 화목 목록이 모두 일치한다.

④ X
8등의 목록에 '규화·전추라'를 넣은 부분이 틀리다. 8등은 목근·석죽·옥잠화·봉선화·두충이 해당된다. 규화·전추라는 9등에 속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과 2번은 1등과 2등의 기준어를 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4번은 8등의 기준어는 비슷하게 맞추고, 목록에서 규화·전추라처럼 9등 화목을 끼워 넣어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등급의 기준어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화목 목록에 다른 등급의 식물이 섞였는지를 본다. 1등은 높고 뛰어난 운치, 2등은 부귀, 5등은 번화라는 축을 먼저 잡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1등 매·국·연·대·솔은 높고 뛰어난 운치, 2등 모란·작약·왜홍·해류·파초는 부귀, 5등 석류·도화·해당·장미·수양은 번화로 기억된다. 규화·전추라는 8등이 아니라 9등으로 묶인다.

NoteBase